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포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戰)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20일간의 행진을 마치고

'95홍해작전 승전감사에배

오늘 찬양예배 시 승전보고, 장신대 중창단의 찬양

지난 6월 6일에 시작한 '95 홍해작전이 오늘로서 20일간의 행진을 모두 마쳤다. 오늘 찬양예배 시에는 "영적 각성과 창조질서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95 홍해작전의 승전감사에배를 드린다.

특별새벽기도회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인 기도 에 관해 도전을 주어 기도 에 게을렀던 자들에게는 새로운 결심을, 기도 에 힘쓰던 자들에게는 그 폭과 깊이를 더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해마다 개최하는 홍해작전은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 의해 성숙되고 고정적인 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번 홍해작전 기간 중에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하신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주제 성구로 삼고 일곱가지 제목을 정하여 개인적으로는 회개를, 교회적으로는 갱신을, 그리고 복음화된 통일조국과 인간·사회·자연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였다.

이번 홍해작전에는 특별히 개인 기도요청카드를 사용하여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는데 이에 동참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교제는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였다.

에베소서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신비, 세상의 창조와 교회 등 기초적인 교리를 받고 이를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의 생활은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몸되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임을 배우고 실천한 시간이기도 했다.

분단 50년 동안 화해의 기미를 찾을 수 없던 안타까운 현실에서 홍해작전 종반에 이르러 접하게 된 북한과의 쌀 협상 소식은 새벽마다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애소하던 우리에게는 평범한 시각으로만은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던 갈멜산의 엘리야가 사람의 손만한 구름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대했듯(왕상 18:42)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남다른 감회를 안겨주는 희망의 소식이었던 것이다.

'95 홍해작전은 영적인 전진을 방해하는 갖가지 홍해를 기도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힘을 다해 예배하고 자신은 절제하며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결단하는 천국시민생활운동이었다. 오늘 승전감사에배 시에는 승전보고와 함께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일 동안의 회개와 감사와 결단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장로회 신학대학원 연합중창단이 내교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서를 갖는다. 12년의 역사를 가진 장신대원 찬양대는 음악을 통한 복음증거를 목적으로 전국교회를 순회하며 선교활동을 펴고 있다.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식

다음 주일(7월 2일)은 '95맥추감사주일로 지킨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맥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내게 될 이날의 I, II, III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각 교회학교에서는 감사 축제가 있을 예정이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미경 선교사 파송

- 임정미 선교사는 일시 귀국 -

지난 2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의료선교사역을 하던 임정미 선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5월 말에 귀국하였다. 임 선교사는 풍토병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었으나 귀국 후 종합검진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건강을 회복하면 장기 사역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30%가 에이즈 환자인 우간다에서 의료사역은 복음전파를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는데 우간다 클루바 병원에서는 10년 전부터 그곳에서 선교사역을 해 온 김정윤 선교사와 함께 한 그간의 임 선교사의 사역을 통한 열매에 감사하고 있다. 우간다 클루바 병원에 의료선교사역과 지역전도 등 복음전파를 지속하기 위해 본교회는 임정미 선교사를 대신하여 이미경 선교사를 파송키로 하였다.

1969년 생인 이미경 선교사는 동우 전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교문리 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한 바 있다. 이 선교사는 의료선교협의회 선교훈련원과 의학선교회 타문화권선교사 훈련원을 수료하였으며, 몽골과 케냐 그리고 우간다에서 단기 사역을 통한 선교훈련을 받았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예배 시 6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환영회는 새가족 여러분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우들과의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6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6월의 새가족 *

유희영	배성균	전진호	김정실
최동성	정은호	허정란	김은혜
김명자	서정희	손현순	유승분
주정숙	엄금순	상명준	남궁혁
한정은	양경모	전애영	이재구
반선호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지상
특강



성경에서 본 교회와 국가

(로마서 13장 1 - 7절)

이종운 목사

현충일과 6.25 기념일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또 이틀 후에는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인생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여러 방법 중에서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제도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 제도가 가정이며, 두번째 제도가 국가이고 세번째 제도가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기구임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한 칼빈은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인간영·육의 관계와 같이 밀접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국가는 상호의존적인 측면이 있는가하면 때로는 갈등관계에 처하기도 하는 매우 모호한 관계에 있습니다.

국가가 제 구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국가 자체가 악마의 시너 노릇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 구실을 하는 경우에 교회는 국가의 기능을 고맙게 여겨야 하고 국가의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국가를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인도하시는 일을 돕도록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제도를 하나님께서 설정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일을 할 경우에 누구보다도 국가의 지도자나 제도에 대해 존경과 복종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유감없이 국가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지도자나 체제를 국민들 혹은 성도들이 원치 않는 경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가이사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합법적인 권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고 바울은 로마서 13장 7절에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

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가이사 둘 다의 권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강한 억압이 온다해도 실제적으로 옳은 것을 따라가야 하며 동시에 모든 면에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1.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시편 62편 11절에는 "하나님이 한 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power)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고 기록되었고, 로마서 13장 1절에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권세입니다. 권력자들도 이 사실을 바로 알고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 바르고 적합하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난이나 공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못됩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비난하기 전에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금을 내고 국방과 교육의 일을 돕고 공의와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2. 그러나 교회가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됩니다.

교회와 국가는 그 기능과 영역이 서로 다릅니다. 교회의 집단적 정치참여는 영역자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치에 대하여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한 정치가가 교인으로서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정부 자체로

서는 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정치가가 되어서 나라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일을 행할 수는 있으나 교회가 집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개혁주의 영역자주권 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3. 그리스도인 개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차원에서 양심을 따라(롬13:5)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믿는 자들로서 영과 육이 모두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 기도하듯 나라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가는 방향은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잘된 것은 용기를 북돋워 주되 현실도피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헐뜯고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동시에 무조건적인 맹종도 옳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양심을 따라서 잘한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비난은 파괴를 초래하지만 옳은 비판은 건설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4.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함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국가보다 위에 계시다는 진리는 성도의 판단을 돕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의 권세(a power)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권세(the power)는 절대적인 권세요, 영원한 권세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농어촌 목회자 초청 세미나 발제 내용 요약

“민족복음화를 위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의 협력 방안”

발제자: 정해술 목사(정립중앙교회)

60년대 이후 산업화로 치닫는 우리 사회에도 시 위주의 개발정책과 우르과이 라운드 등 일관되지 못한 농업정책 등으로 농어촌의 인구는 급속히 감소했다. 이농현상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대부분 농어촌 교회에는 교인의 수가 줄고 침체하여 자립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많다.

농어촌 교회의 자립 방안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농어촌 교회 자체가 자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민의 숙원 사업에 동참하여 지역을 개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

한걸음 나아가 도시교회와 총회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도시교회는 농어촌 선교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선교할 수 있다. 바른 목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농어촌 살리기 운동을 펴는 일에 도시교회가 형제애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어야만 한다.

한편 농어촌 목회자들이 소신껏 선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한데 지원이 특정한 교회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교회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① 지역주민을 위한 교회의 일(교인 대상의 양로원, 선교원 혹은 놀이방, 도서실, 운동기구 설치 등) ② 농어촌 목회자를 위한 지역 중심의 세미나와 도서보급 ③ 받지만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



지난 19일(월)우리교회와 자매결연한 농어촌 목회자를 초청하여 농어촌 교회의 부흥을 위해 도시 교회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보는 세미나를 가졌다.

◀우리교회가 시작한 <100교회 운동>이 실효를 거두고 점차 확산되어 민족복음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이날의 세미나에는 <100교회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지원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자매 교회의 상황을 직접 듣고 목회자들을 위로하였다.

▶ 농어촌 목회자 초청 세미나를 마치고

존경하는 목사님과 서울교회 성도님들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실 줄 믿고 문안드립니다.
지난 19일에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를
감히 글로서 감사드립니다. 용서하옵소서.
셋방살이 하는 서울교회가 저희처럼 집 있는 교회를 구제하시니
송구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100교회운동>을 통해 사랑을 나누어 받는 우리교회는
그래도 동지라도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그 날 베풀어주신 식탁을 대하며
감사함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식탁을 준비하시느라고 빛도 없이 애쓰셨을
많은 집사님들의 손길에 감사하면서
믿는대로 섬기는 신행일치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일곱 수(七數)는 더욱 번개 없으실 줄 믿어
가장 미약한 한 한 고드란트, 7만원을
서울교회 건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작은 물질이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불쏘시개와 같이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산 위에 달이 뜨면 개울에 그 달이 비쳐
<새벽>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에 위치한 월천교회 김승규 전도사가
감사드리며 글일드립니다.

1995년 5월 21일

'95 홍해작전 행진일기

“여호와 닛시 하나님 찬양”

최미아(집사, 5교구)

해마다 홍해작전은 특별한 기도의 기회가 되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게 된다. 그런데 작년 홍해작전에는 이를 전 입원한 아이를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어 안타깝게도 참석하질 못했다. 그래서인지 올해는 더욱 더 기다려졌고 갈급했던 만큼 은혜도 더욱 컸던 것 같다.

긴장하고 잠자리에 들어서인지 깜짝 놀라 깨어보면 2시, 또 잠시 눈을 붙이고 떠보면 3시...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며 날마다 어김없이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제 시간에 일어나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것, 너무도 감사하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남대교를 넘어설 때마다 감사로 목이 메어왔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 저도 새롭게 새롭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내가 고쳐주리라”하신 약속을 믿고 창조질서가 회복되기를 간구하였다.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엘 사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다. 우리 아이는 지금 다리의 신경을 다쳐 걷지 못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굳게 믿으며 말씀을 힘써 머리를 조아렸다.

이제까지 도와주신 애베크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승전의 오늘, 여호와 닛시 - 우리 승리의 기(旗)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진용 - 우간다로 파송받은 이민교회 선교사

“마음의 서원을 주시고 한걸음씩 인도하신 주님”

자녀 삼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주님 분들의 인정과 기대 속에 갈등없이 신앙생활을 해 왔고 교회활동도 활발히 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있으면서도 죄 문제가 늘 저를 괴롭히고 위축시켜서 신앙의 성장을 방해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과 “죄과를 동(東)에서 서(西)가 먼 것같이 옮기신 하나님”을 확신시켜 주시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우연히 여자 선교사님의 사진이 있는 선교 달력을 보게 된 후부터 막연하게 선교사의 길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이 고등학교 때에 다시 생각나 신학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길이 열리지 않아 좌절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야 할 길을 조금씩 열어 보이셨고, 한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간

호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어떤 정보도 없었고 주변의 환경도 선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졸업 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부터는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의 서원이 뚜렷하게 적용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고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료선교훈련원을 접하게 되었고 단기 선교훈련을 통해 예측하지 못했던 나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많은 영혼들의 손짓을 보게 되었고 영적 돌봄을 위해 의료 사역이 유용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서원을 주시고 부족한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가치한 저를 그리스도로 인해 값지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한 바울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여기가 땅 끝



『아프리카의 진주』 우간다

■면적 - 241,000Km². 땅의 대부분이 비옥하며 온화한 기후에 관계가 잘 되어있어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진주”로 불리워왔다.

■인구 - 22,012,000명. 아민의 독재, 내전, 기근, 부족간의 살육으로 인해 셀 수 없는 인명이 죽어가고 있으며 특별히 에이즈의 영향은 치명적이다.

■경제 - 1인당 미화 250불 정도

■정치 - 1962년 영국에서 독립한 후 이디아민이 1971년 정권을 잡을 때까지 무정부 상태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아민의 집권 후 잔인한 살생이 계속되어오다가 86년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소 안정을 찾고 있다.

■종교 - 아민 정부 이래 기독교인들에 대한 규제와 많은 핍박이 있었고 한동안 소수 회교가 선호되었으나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간다에는 에이즈의 참화가 너무 커서 경제생활과 사회가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 인구의 약 30%가 에이즈 감염자여서 그 희생자 뿐 아니라 고아와 노인문제가 심각하다. 결혼 전의 순결과 결혼생활의 충실함을 위한 교회교육과 지원사역이 결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박형용 박사 안식년 맞아 도미

협동 목사로 수고하면서 장년부를 지도하던 박형용 목사(합동신학원 교수)는 안식년을 맞이하여 7월 첫 주부터 1년간 미국에서 연구활동을 하면서 안식년을 보내게 된다.

소망부 성경암송대회

오늘 집회 시에 시편 67편 전장을 반별로 외우는 성경암송대회를 갖는다(집회 / 오후 12시 40분).

유치부 오늘, 성경퀴즈대회

오늘 95년도 상반기 교육의 평가를 겸한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한다. (I부 - 오전 9시, II부 - 오전 11시)

한편 유치부에서는 강남노회가 실시한 교사강습회에 많은 교사들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 등 여름 성경학교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노회 심장질환 무료치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남노회에서 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심장병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추천을 받고 있다.

문의 / 서울강남노회 사회부 사회부장 정철용 목사 ☎ 214 - 9416(집), 215 - 7524(교회)
국립의료원 한영성 목사 ☎ 260 - 7143

부목사 청빙

서울교회를 섬길 사명을 가진 부목사 0명을 청빙합니다.

- 자격: 장신 신대원을 졸업한 본교회 소속 교단(통합) 목사
- 서류 제출: 7월 15일까지 본교회 소정양식

문의 / 서울교회 사무국 ☎ 517 - 7651 ~ 5

■이중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아세아방송(HIAZ 1566KHz) 「주일설교」 매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주일설교 계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홍해작전의 승전을 감사하며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2.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3. 민족복음화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4. 바른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